

『三合明珠寶劍全傳』의 판본과 서사에 대한 고찰*

김명신·민관동**
(경희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중국 서적은 16세기경에 이미 활발하게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다. 대개 中宗 13年(1518)에는 書肆라는 서점이 설치되어 중국 서적이 상당히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18세기 초엽에는 민간에까지 書肆가 설립되어 서적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말 흥미롭고 중요한 책들은 몰래 음성적으로 冊僮(서적중개상)를 통해 개인적으로 거래되었다. 또한 책매가 취급하는 서적 중에는 중국 소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고 해도 중국 소설의 국내 유통 상황을 살펴본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¹⁾ 다만 작품의 중국 출판 시기와 국내 독자들의 기호 등을 고려해보면 국내에 유입된 시기를 어렵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三合明珠寶劍全傳』은 중국은 물론 국내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현재 희귀본으로 분류되어 현대 판본으로 새로 출판된 작품이기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2-A00128).

** 주저자: 金明信(慶熙大學校 比較文化研究所 學術研究教授).
교신저자: 閔寬東(慶熙大學校 中文科 教授).

1)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9, 35-53쪽 참조.

도 하다. 소위 ‘十才子書’²⁾ 중의 하나라고 알려지고 있고 『爭春園』의 모방작이라는 설도 전해지고 있지만³⁾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논문에서 언급된 경우도 극히 드물고 깊이 있게 고찰한 성과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三合明珠寶劍全傳』은 朝鮮時代 국내에 전래되었고 나름대로 조선인들에게 읽혀졌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은 중국 내에서도 드물게 유통되었던 희귀본이었기에 조선에 전래되었음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이제 작품의 판본과 유입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작품의 서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작품의 판본과 국내 유입

『三合明珠寶劍全傳』은 42회로 작자는 未詳이며 一名 『大漢三合明珠寶劍全傳』 또는 『三合劍』이라고 하는 俠義小說이다. 이 작품의 주요한 판본은 經綸堂 간행본과 光緒 戊寅年(1878) 간행본이 있다.

첫째, 道光 戊申年(1848) 經綸堂 간행본은 柳存仁의 『런던에 소장된 中國小說書目提要』에서는 ‘갑술년 여름 간행본’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이 甲戌年은 同治 13年(1874)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爭春園』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되는데⁴⁾, 『爭春園』의 초간본이 嘉慶 24年(1819)이므

2) ‘十才子書’는 金聖嘆이 선정했다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선정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三國志演義』, ②『好逑傳』, ③『玉嬌梨』, ④『平山冷燕』, ⑤『水滸傳』, ⑥『西廂記』, ⑦『琵琶記』, ⑧『花箋記』, ⑨『平鬼傳』(斬鬼記), ⑩『三合劍』이다. 黃軼球, 「越南古典文學名著成書溯源」, 『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 第1期, 1982, 4, 61쪽 참조.

3) 『三合明珠寶劍全傳』이 『爭春園』의 모방작이라는 설은 작품 서문에 명시되어 있다. 개괄적인 줄거리가 비슷하고 등장인물의 성명이 유사하지만 이 작품은 馬俊의 활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柳絮의 애정고사가 강조되어 있어 俠義愛情小說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또한 『爭春園』은 48회이지만 『三合明珠寶劍全傳』은 42회로 되어 있다. 金明信, 「『爭春園』의 構造와 主題 研究」, 『中國小說論叢』 제36집, 2012, 4, 131-148쪽 참조.

4) 『三合明珠寶劍全傳』은 일명 『大漢三合明珠寶劍全傳』이라고도 하는데, 清代

로 『三合明珠寶劍全傳』의 저작은 이보다 늦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光緒 戊寅年(1878) 간행본은 속표지에 가로로 ‘三合劍’이라고題하고 가운데 좌측에 ‘繡像第十才子書’, 우측에 “光緒戊寅新鐫”이라 밝혔다. 목록의 앞에는 ‘新刻大漢三合明珠寶劍全傳’이라고 전체 이름을 썼으나 판심에는 ‘三合劍’이라 약칭으로 되어 있고 한 면이 10行, 1행이 22字로 되어 있다. 또한 12쪽의 插圖가 있는데 위에는 그림, 아래는 贊文이 있다.⁵⁾

다음은 『爭春園』과 『三合明珠寶劍全傳』의 회목을 서로 비교한 도표이다.

書名 回數	『爭春園』	『三合明珠寶劍全傳』	回目比較
第1回	昇平橋義俠贈劍	遇英雄同心結拜 救母女惹禍奔逃	類似
第2回	爭春園英雄救人	避急災弟兄分別 脫羅網兄妹權棲	非類似
第3回	雪浮亭豪杰助陣	贈寶劍鬼谷差徒 妬賢良屈忠薦敵	非類似
第4回	松林內仙長迷途	承君命奉旨提兵 到父衛奇緣入贅	非類似
第5回	假嚮馬口劫小姐	群奸設計圖謀急 世誼深交拜探忙	非類似
第6回	眞英雄冲散強人	假聖旨柳絮坐危 眞仗義李愷解危	非類似
第7回	破佛寺白壁遭險	虛心病社門絕客 重交情忍辱按兵	非類似
第8回	紫霞軒赤繩聯姻	立熱腸千里奔京 瞰冒名一時自陷	非類似
第9回	鳴經略奉旨伐寇	明冤陷舍命闖宮 歷情由招供自首	非類似
第10回	常公子邀友遊湖	盤刺客金後明詳 訴詞窮屈方強辯	非類似
第11回	味理謀奸身受辱	明假冒囚禁天牢 誣欺君辯功奸佞	類似
第12回	仗義醫瘡遇異人	定奸謀宮內圖君 不意中御園救駕	類似
第13回	聚義贈劍說冤枉	露奸計奔逃被難 表功勞賜贈榮封	非類似
第14回	施計放火盜人頭	逃災難誤投賊旅 貪財寶逼賣煙花	非類似
第15回	爲友除病忌天理	忍恥辱認妹逢兄 圖美麗誤男作女	非類似
第16回	報警入獄起沈疴	試才藻有心安處 念忠賢下詔回師	非類似
第17回	張中治累鳴知府	繡閣中私結良緣 公堂上糊塗立案	類似
第18回	馬俊喜逢活眞師	兄逼妹強離閨閣 僕伴主誤進禪堂	非類似
第19回	阮氏賣伯窩男子	追神鹿獵奸解危 訪駙馬遇舊談心	非類似

章回小說로 분류되고 있고 『爭春園』을 모방하여 지었지만 그 중에 도사들이 신비한 술법을 이용해서 싸우는 장면이 많아서 神魔小說과 비슷한 색채를 띠고 있다고 하였다. 白維國·朱世滋 主編, 『古代小說百科大辭典』, 學苑出版社, 1991. 329쪽 참조.

5)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清小說研究中心文學研究所 編,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 中國文聯出版公司, 1991, 633쪽 참조.

書名 回數	『爭春園』	『三合明珠寶劍全傳』	回目比較	
第20回	春香偷情引主奴	到昇平舅甥聚首	說梁山強寇歸投	非類似
第21回	顧明園包剛逢友	別舅妹公辦勞忙	救柳絮死生瞬息	非類似
第22回	金鷄巷太守伸冤	災去福來欣聚會	奸強善弱慍欺凌	非類似
第23回	假傳聖旨害忠良	爲貪淫左目中傷	懼征討携家奔遁	非類似
第24回	重改口供順奸惡	全貞節咬舌歸陽	救妹子敗兵失散	非類似
第25回	救鳳公一人報應	富柳英初逢柳絮	九龍道兩敗馬俊	非類似
第26回	殺賊官百姓霑恩	蒙野道拜懇爲徒	賄彌童暗污邪物	非類似
第27回	鳳小姐誤入烟花	暗通風計除妖道	明誅戮義釋群僧	非類似
第28回	常雲仙欣逢貞烈	有福人臨危遇救	倒運賊不意遭殃	非類似
第29回	篋厄邀飲空歡喜	路途中兄弟重逢	馬家莊師徒分別	非類似
第30回	丫環泄漏脫災厄	擬插臺拜本回朝	正國法誅凶營衆	非類似
第31回	居二姑治容惹禍	背師言野道下山	違旨命鸞英開搗	非類似
第32回	武大漢妬奸行凶	領御旨衆將加封	背君恩群奸造反	非類似
第33回	狼上狼殺人滅口	打搗臺英雄入贅	焚難香慈悲賜寶	非類似
第34回	誤中誤認假爲眞	現原形龜精被戕	忿出醜王勇助奸	非類似
第35回	三進開封索寶劍	劫夜營屈奸敗陣	投賊寨鼠輩招軍	非類似
第36回	兩案人命審眞情	知天命老祖訓徒	違法戒左道背師	非類似
第37回	因貪財橫死奸黨	聞妖道請旨添兵	閱章奏准師赴敵	非類似
第38回	爲施恩放走家丁	施妖術漢軍敗績	焚信香兄妹求師	非類似
第39回	鐵球山喜燃華燭	領法旨善才助漢	探軍情妖術傷兵	非類似
第40回	銀安殿笑接彩球	鬪法寶法成敗陳	念道流老祖遣徒	非類似
第41回	常撰怒怪假柳緒	獲奸佞原歸法寶	成戰功奏凱班師	非類似
第42回	馬俊義奏眞史通	表軍功頒譜華燭	誅奸佞封贈團圓	非類似
第43回	三法司堅持異見	回目無		比較不可
第44回	九重主思封功臣	回目無		比較不可
第45回	遇金翁情結父子	回目無		比較不可
第46回	征米寇天降神仙	回目無		比較不可
第47回	眞駙馬恩承招贅	回目無		比較不可
第48回	衆公候奉旨團圓	回目無		比較不可

앞서 도표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두 작품의 유사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우선 『爭春園』의 회목은 1행으로 되어 있지만 『三合明珠寶劍全傳』은 雙行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비교적 유사한 회目は 1, 11, 12, 17회이지만 나머지 회목은 거의 유사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확연히 다른 점을 살펴보자면, 『爭春園』은 제48회로 구성되어 있으나 『三合明珠寶劍全傳』은 제42회로 6회 부분의 내용이 적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가 『爭春園』은 1819년에 초간본이 출판되었고 『三合明珠寶劍全傳』은 1848년에 초간본이 출판되어 거의 30년이라는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三合明珠寶劍全傳』이 『爭春園』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回目만을 비교해본다면 두 작품에 대한 유사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겠다.⁶⁾

이 작품의 국내 유입에 관한 기록은 아직까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작품의 창작 시기가 清代 中期이고 이 작품과 유사한 俠義小說에 속하는 『忠烈俠義傳』과 『忠烈小五義』 등이 조선에 유입되어 19세기 초에 한글로 번역되었으므로 19세기 이전에는 譯官이나 使臣 등을 통해서 朝鮮에 전래되었으리라 추측된다.⁷⁾ 국내에는 中國木版本이 유일하게 成均館大에 소장되어 있는데, 6卷 4冊으로 裏題는 繡像第十才子書라 되어 있고 版心題는 三合劍이라 되어 있으며 삽도가 포함되어 있고 淸 光緒 5年(1879) 三讓堂에서 간행된 판본이다. 제1冊에는 漢武帝부터 王通까지 12폭의 인물상이 있는데, 의외로 주요 俠義人物의 형상은 빠져 있고 부차인물의 형상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⁸⁾

『三合明珠寶劍全傳』은 중국 내에서도 출판된 판본을 거의 찾을 수 없는 희귀본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후 光緒 戊寅年(1878) 간행본을 참조하여 春風文藝出版社에서 1997년 새로 출판되기도 했다. 다음은 국내 소장 중국판본의 판식 상황과 소장처 등을 간단하게 도표로 작성한 것이다.

6) 『爭春園』과 『三合明珠寶劍全傳』의 협의인물 馬俊의 성명은 똑같지만 나머지 인물들의 성명은 조금씩 다르게 지어져 있다. 예를 들면 柳緒와 柳絮, 郝聯과 郝鸞 등이다. 게다가 『爭春園』은 48회로 편폭이 더 길기 때문에 기타인물들이 다양한 사건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깊은 인물 형상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7) 閔寬東·張守連·金明信 共著, 『韓國 所藏 中國通俗小說의 版本目錄과 解題』, 학고방, 2013. 482-483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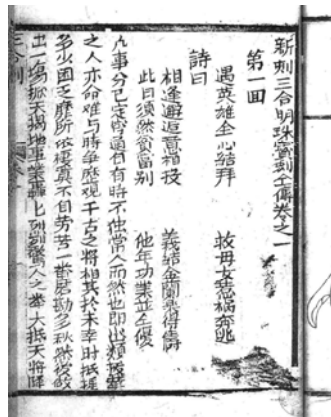
8) 부차인물에 대한 형상과 묘사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쉽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인물을 그리지 않은 까닭은 그리지 않아도 독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거나 주요인물을 그리게 되면 오히려 작품의 통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書名	出版事項	版式狀況	一般事項	所藏處/所藏番號
新刻三合明珠寶劍全傳	撰者未詳, 三讓堂, 清光緒5(1879)刊	6卷4冊, 中國木版本, 有圖, 17.3×11cm, 四周單邊, 半郭:12.1×9cm, 無界, 10行22字, 上黑魚尾, 紙質:竹紙	裏題:繡像第十才子書, 版心題:三合劍, 刊記:光緒己卯(1879)新鐫三讓堂梓	成均館大學校 D7C-65

다음은 성균관대에 소장된 『三合明珠寶劍全傳』의 표지, 제1회, 애정인물 獨陽宮主와 幻想人物 聶法成的 형상을 찍은 사진이다.



〈그림1〉 성균관대 소장 『三合明珠寶劍全傳』의 표지



〈그림2〉 성균관대 소장 『三合明珠寶劍全傳』의 제1회



〈그림3〉 獨陽宮主의 형상



〈그림4〉 聶法成的 형상

3. 작품의 서사구조

『三合明珠寶劍全傳』은 清代 俠義愛情小說 『爭春園』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두 작품의 주인공들 이름이 매우 유사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爭春園』과는 달리 이 작품은 주인공 馬俊의 애정 고사를 부연하고 환상적인 내용이 부가되어 있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馬俊은 盜俠으로 활약하는 동시에 자신이 구해주었던 劉英嬌와 결혼하고 있다. 또한 그는 도사에게 증여받은 보물을 사용하여 간신 屈忠成을 제거하면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협행을 펼친다. 다음은 주요인물의 행위와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를 굵직하게 분류해 본 것이다.

- 1) 馬俊이 여인을 강제로 취하려는 丁光을 때려죽이고 도망을 다니게 된다.
- 2) 柳絮와 郝聯은 부친의 명으로 장안으로 향하고 마준은 丹鳳山에서 石如虎와 의형제를 맺고 蕭古達에게 三合明珠寶劍과 飛天帽을 하사받고 무예를 익힌다.
- 3) 재상 屈忠成은 유서의 부친 柳眉에게 단봉산의 산채를 정벌하게 만든다.
- 4) 柳絮는 부마로 선발되지만 굴충성의 간계로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
- 5) 굴충성은 자기 아들 屈方을 부마로 위장한다.
- 6) 柳絮는 張珍과 李鳳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도망친다.
- 7) 마준은 柳眉의 군대와 교전하지 않고 飛天帽을 쓰고 황제에게 부마가 가짜임을 알린다.
- 8) 굴충성은 漢武帝를 시해하고자 하나 마준이 황제를 구출하여 悅心王에 봉해진다.
- 9) 張珍과 李鳳이 자수하여 유서의 일을 알려지자 황제는 그들에게 營將 벼슬을 주고 마준과 유서를 찾도록 한다.
- 10) 유서는 王貴로 개명하고 기생으로 팔렸다가 富小姐(柳英)와 만나 인연을 맺지만 富大雄은 유서가 부마를 사칭했다고 고발하고 누이더러 자진하도록 한다.
- 11) 富小姐는 몰래 도망쳤다가 黃土山의 산채주 趙虎에게 구출되고 馬俊

등은 虎炮山에서 의형제 包剛을 만나 사형장에서 유서를 구출한다.

- 12) 馬鸞英은 건달 鄺鳳과 도사 등에게 정절을 잃을 지경이 되자 자결했다가 사냥꾼 馬雄에게 발견되어 양딸이 되고 관음보살에게 무예와 도술을 배우고 남편감을 찾는다.
- 13) 馬俊은 누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도사와 싸워 패배하고 구원을 요청한다.
- 14) 유서는 도사를 가져 스승으로 삼고 요물을 망가뜨리니 趙虎가 도사를 죽인다.
- 15) 부소저는 마난영을 찾으러 나서고 마준 등도 합류한다.
- 16) 굴충성은 요괴 卜道安과 함께 군사를 일으키고 마준은 굴충성의 군대와 싸웠으나 패배한다.
- 17) 마난영은 峇鐵虎를 남편감으로 정하고 관음보살의 도움으로 굴충성의 군대를 대파한다.
- 18) 聶法成이 마준의 삼합검과 마난영의 건곤망울 빼앗아 곤경에 처하나 관음보살이 선재동자를, 王禪老祖가 蕭古達을 보내어 굴충성을 제거하고 승리한다.
- 19) 유서는 공주와 혼례를 올리고 부소저를 제2부인으로 삼았으며 마난영은 잠철호와 혼례를 올린다. 마준은 劉英嬌와 혼인하며 郝聯은 司馬相如의 딸과 혼인하고 포강은 張廠의 딸을 배필로 맞았으며 모두 상훈을 받는다.

전반적으로 볼 때 俠義人物 馬俊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준은 처음에 협의를 시행하다가 도망 다니게 되고 도사의 도움으로 三合明珠寶劍과 飛天帽를 얻고 무예를 익힌다. 그리하여 간신 屈忠成의 음모를 파헤치고 간신배들과 싸우다 패배하지만 다시 관음보살 등의 도움으로 승리하고 혼인한다. 이상과 같이 협의행위→도망→보물 획득과 무예 학습→간신과의 전쟁→패배→조력자의 도움→승리와 혼인이라는 간단히 도식으로 만들 수 있다.⁹⁾ 마준 이외에도 郝聯, 包剛 등의 활동도 나타나고

9) 이 작품은 婚姻終結型的 서사구조로 되어 있는데, 협의인물들의 고난을 중심으로

있지만 마준의 활약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고 협의인물들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다른 협의인물들은 빛이 바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협의인물과 부정인물의 대립과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大團圓이라는 방식을 통해 마무리 짓고 있다.

4. 등장인물의 분류

『三合明珠寶劍全傳』은 남자 주인공 馬俊이 俠義를 실천하기 위해 쫓기게 되고 황제에 대한 충의를 표출한다는 면에서 清代 俠義小說의 특징을 완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마준의 행적 이외에도 柳絮, 獨陽公主, 富小姐 등의 파란만장한 애정 고사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이 있다. 또한 작품 중에는 觀音菩薩과 道士들이 협의인물과 부정인물 양쪽에 도움을 주면서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특히, 妖怪와 협의인물의 전투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환상적인 술법을 사용하여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벗어난 독특한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俠義의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한다면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인물이 俠義人物이다. 이외에 협의인물이 제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해주는 인물들도 있다. 그들은 협의인물의 俠行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不正人物에 해당한다. 또한 협의인물 또는 긍정인물과 애정 구도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부정인물과도 얽히게 되는데, 愛情人物에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협의인물과 부정인물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물들이 있다. 이들은 협의인물과 부정인물의 보조자로서 幻想人物¹⁰⁾들에 속한다. 다음은 작품의 등장인물들을 俠義人物, 不正人物, 愛情人物, 幻想人物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해서 분석하면 고난1→협행→고난2→만남→국가의 고난→만남→대단원의 순차적 구조로도 구분될 수 있다. 金明信,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2000. 6. 62-63쪽 참조.

10) 여기서 幻想人物은 현실에서 벗어난 환상 속의 비현실적인 인물들을 가리키는데, 道교적이고 불교적인 인물 모두를 포괄한다.

1) 依義人物

협의인물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들로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부정인물과 대립하며 시대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협의인물은 馬俊, 郝聯, 包剛, 馬鸞英 등을 손꼽을 수 있다.

馬俊은 혈기가 충만한 인물로 불의한 일을 보면 참지 못하고 분연히 도와준다. 다음은 마준이 아무런 이해 관계없이 곤경에 처한 劉英嬌 모녀를 흔쾌히 돕는 장면이다.

(馬俊이)큰 걸음으로 나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정 공자는 걸음을 멈추시오.” 丁光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너는 어떤 사람인데 큰 소리로 외치느냐?” 馬俊이 말했다. “당신은 공자이자 관리 집안이니 백성에게 일이 생기면 반드시 보호해야 하고 법을 알고 무서워해야지요. 마땅히 법을 알고 범해서는 안 되는데 양가의 규수를 약탈하여 강제로 첩실로 들이다니요! 이 일이 西京에 전달되어 조정에서 알게 되면 영존에게 화가 미쳐 잘못 가르친 죄를 받을 것이요. 공자께서는 재삼 생각하셔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이 크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 “너는 어떤 놈인데 감히 나에게 대적하는 거냐? 이 여자는 너의 무슨 친척이라도 되느냐?” 마준이 말했다. “친척도 아니고 연고도 없습니다. 사람은 바르면 말하지 않고 묻은 평평하면 흐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왕법이 없으니 간덩이가 커지면서 누가 박정하게 되었겠지요?” 공자가 크게 화를 냈다. “그녀의 모친이 나에게 돈을 빚겨 수차례 갚을 수 없다고 하니 그냥 놔둘 수 있겠느냐? 그녀의 딸을 빼앗지 않으면 무엇으로 담보물로 잡히겠느냐?” 마준이 말했다. “그녀의 모친이 어떻게 당신의 돈을 빚졌겠소? 빚을 졌다면 달리 방도가 있겠지요. 하물며 남녀는 직접 주고받지 않는 법인데 법도 따져보면 돈을 빚진 것은 거짓이요, 여자를 약탈한 것이 진실이요!” 정광이 크게 화를 내며 손으로 마준의 옷을 잡으며 말했다. “너를 관청으로 데려가서 두 달 동안 축쇄를 차게 해야 이해관계를 알게 될게다!” 마준이 주먹으로 쳤는데, 뜻밖에 힘이 너무 세고 연달아 몇 대를 치자 정광이 땅바닥에 엎어지더니 어느새 죽어버렸다. 모녀가 당황해하자 마준은 그녀들을 집에 돌아가도록 하면서 말했다. “결국 큰 일이 있더라도 내가 책임질 것이요.”(邁開大步上前, 大叫一聲: “丁公子住步.” 丁光聞言回頭一看: “汝何等人物, 大聲小叫?” 馬俊道: “你爲公子, 官宦之家, 百姓有事, 應爲護托, 識法懼法. 不該識

法犯法, 奪人良家閨女, 強逼爲妾! 恐怕傳上西京, 朝廷知道, 禍及令尊失教之罪. 請公子三思, 方可而爲.” 丁光大怒道: “爾是何人, 敢與公子作對? 這女子是你甚麼的親?” 馬俊說道: “非親非戚, 非其故也. 但人平不語, 水平不流. 目無王法, 膽大包天, 誰人不情?” 公子大怒: “他母親欠我銀兩, 屢討無償, 難道罷手不成? 不搶他女兒, 將何作抵?” 馬俊道: “他母親如何欠你銀兩? 倘欠銀兩, 自有分區. 況且男女授受不親, 忖度起來, 欠銀情虛, 搶女是實!” 丁光大怒, 將手扯住馬俊衣衫說: “扯爾到官, 重枷兩月, 方知利害!” 被馬俊舉拳打去, 誰知力大, 連拳幾頓, 竟將丁光打倒在地, 不覺嗚呼哀哉. 母女心慌, 馬俊著他回家: “總有天大事, 系我擔當.” 제1회)

이처럼 馬俊은 아무 연고도 없는 부녀를 흔쾌히 도와주고 있다. 그녀들이 후사를 걱정하자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안심시킨다. 협의인물들은 일단 도움을 주게 되면 끝까지 모든 일을 돕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¹¹⁾, 마준도 이러한 면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또 다른 협의인물 郝聯¹²⁾의 눈으로 본 馬俊과 包剛의 모습이다.

郝聯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뱃머리에서 나와 호랑이 같은 눈으로 바라봤다. 붉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키가 일장이나 되었고 허리는 몇 아홉이나 되었는데 불과 18세 소년이었다. 머리에는 붉은 두건을 쓰고 몸에는 붉은 옷을 입어 마치 火神이 강림한 것과 같았다. 또 까만 얼굴을 가진 사람은 키가 구척이었고 호랑이 같은 머리에 제비턱을 가졌으며 16세가 못 되는 소년이었다.(郝聯聞言, 亦出船頭, 把虎目一觀, 見一人面如赤色, 身高一丈, 腰大數圍, 少年不過二九. 頭戴赤巾, 身穿紅衣, 好似火德星君降世—

- 11) 협의인물들은 옛날부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의식이 대단히 투철하여 돈을 물 쓰듯이 했고 몸을 사리지 않고 도와주었으며 한 번 돕기로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협의인물의 俠義觀念에 대해서는 김명신, 「俠義의 概念과 『兒女英雄傳』의 特徵」, 『中國小說論叢』 제5집, 1996, 3, 275-295쪽 참조.
- 12) 郝聯은 『爭春園』의 郝鸞과 비교할 수 있다. 학란은 작품 중에서 주도적인 입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도사에게 하사받은 검을 호걸들에게 나누어주며 협의를 펼치는 역할을 하지만 학란은 이 작품에서 馬俊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빼앗기고 역할이 축소되어 있어 약간 밋밋한 협의인물로 보인다. 金明信, 「『爭春園』의 構造와 主題 研究」, 『中國小說論叢』 제36집, 2012, 4, 131-148쪽 참조.

般; 又有一人面如青色, 身高九尺, 虎頭燕頤, 少年不滿二八. 제1회)

이처럼 배가 충돌함으로 인해 郝聯은 馬俊과 包剛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모두 다혈질이라 시비가 붙어서 싸우게 되지만, 柳絮가 중재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들은 의형제를 맺게 된다.

柳絮가 말했다. “저는 두 분의 아우가 되고자 하니, 네 사람 모두 의형제가 됩시다. 제 말투가 불손하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馬俊과 包剛이 말했다. “두 분은 귀족의 자손으로 부모님은 고관이고 저희들은 한낱 무인으로 경솔하고 거칩니다. 어찌 감히 못 오를 나무를 쳐다보며 귀인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柳絮와 郝聯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은 세계가 모두 형제입니다. 어찌 인사말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서가 말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마준이 말했다. “헛되이 세월을 보내서 19세가 되었습니다.” 또 포강에게 물었더니 포강이 말했다. “17세입니다.” “마형이 저보다 한 살 많고 마형이 큰 형님이 되시고 저는 둘째가 되고 학연은 셋째가 되고 포강이 넷째가 되는군요.” 뱃사공에게 분부하여 촛불과 희생물을 준비하도록 해서 하늘을 향해 절을 하며 맹세했다. “같은 날에 태어나길 바라지는 않지만 같은 날에 죽기를 바라옵니다.” 그들은 즉시 배에서 거나하게 마시고 서로 팔을 잡으며 이야기를 나눴다.(柳絮說道: “小生欲與二位並我舍弟, 聯合四人拜爲兄弟. 莫怪出言不遜, 未知允否?” 馬俊·包剛道: “二位乃金枝玉葉, 父母高官, 我等一介武夫, 粗言鹵莽. 何敢高扳, 恐辱貴人?” 柳絮·郝聯齊聲道: “四海之內皆兄弟也, 何須客話謙言至此!” 柳絮道: “請問貴庚多少?” 馬俊道: “虛度韶光, 年登十九矣.” 又問包兄, 包剛道: “十七歲矣.” “馬兄年長小生一歲, 馬兄爲大, 我應爲二, 郝聯爲三, 包剛爲四.” 吩咐舟人, 備辦香燭牲禮, 對天結拜. 誓曰: “不願同時生, 但願同時死.” 就在舟船中, 暢懷痛飲, 把臂談心. 제1회)

이처럼 혐의인물 馬俊, 柳絮, 郝聯, 包剛은 단숨에 의기투합하여 의형제가 되며 호기롭게 술을 마시고 헤어진다.

郝聯은 전형적인 혐의인물의 용모를 가졌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위엄이

넘쳐 보인다. 그는 馬俊과는 달리 좋은 집안 출신이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郝聯은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 같은 머리와 제비턱을 가졌고 두 팔에는 천근을 들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며 본래 刑部尚書를 지냈던 郝雲龍의 아들이다. 그는 또 洛陽 사람이다.(又一位姓郝名聯, 生來虎頭燕頤, 兩膀有千斤之力, 原任三法司刑部尚書郝雲龍之子. 他亦是洛陽人氏. 제1회)

郝聯은 馬俊과는 달리 출신도 좋은데다가 의협심까지 지니고 있는 독특한 인물로 마준과 더불어 협행을 시행하고 있어 나라의 재난과 柳絮의 목숨을 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여협 馬鸞英은 마준의 여동생으로 본래 아무런 무예를 익히지 못한 연약한 여자였다¹³⁾. 그녀는 登封縣에서 放山虎 鄭鳳에게 능욕을 당할 뻔한 위기를 겪게 된다. 광봉은 불의하고 사악한 자로서 지방 호족인데도 불구하고 늘 사람을 억압하고 업신여겼던 사람이었다.

馬鸞英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데 鄭鳳은 그녀를 석실에 데려다 놓았다. 마난영은 끊임없이 욕을 했다. “이 간악한 놈아, 부녀를 약탈하다니 그 죄는 주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빨리 나를 馬二店으로 보내거라. 만약 그리 하지 않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와서 너희들을 죽이고 밟아서 평지로 만들 테니 그뎨 후회해도 늦을 것이다.” 지방 호족이 크게 외쳤다. “너의 오라비가 누구냐? 내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앞으로 가서 그녀를 껴안고 여러 가지로 희롱했다. 마난영은 성격이 강직하여 금비녀를 가지고 광봉의 왼쪽 눈을 찌르니 광봉이 기절하며 땅바닥에 엎어졌다. 온몸에 피가 낭자했지만 고통스러워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하인들이 급히 부축했다. 호족의 처첩들은 마난영을 퐁퐁 묶고 마구잡이로 때렸다. 마난영이 아프다고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누가 감히 대답하겠는가. 토호가 깨어나서 크게 탄식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 두 눈이 있는 것과 같다. 오늘

13) 고전소설에서 인물은 대개 평면적인 인물들이 대부분이고 입체적인 인물은 그리 많지 않다. 馬鸞英은 女俠의 전형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연약한 여성에서 강인한 여협으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독특한 인물이라 하겠다.

네 년이 내 왼쪽 눈을 망가뜨려서 남들에게 부끄럽게 되었으니 어찌 사람들을 볼 면목이 있으리오? 부인들은 그녀를 방 안에 가두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 내가 완전히 치유된 날에 그녀와 따져 보겠다.” 부인과 첩들이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교대로 지켰다. 광봉은 사람에게 명하여 의원을 모시고 와서 치료하도록 했다.(王姑被害, 鄺鳳將他安置石室. 馬小姐罵聲不絕: “爾這奸惡, 搶人婦女, 罪不容誅. 急急送回馬二店中就罷. 倘若不依, 家兄到來, 剿絕爾門, 踏爲平地, 那時悔之莫及.” 土豪大叫: “你令兄是誰, 難放入吳眼內.” 向前抱住, 百般調戲. 王姑性烈, 把金簪刺入鄺鳳左目, 鄺鳳氣絕倒地. 滿身鮮血, 痛苦難聲. 家人急忙扶起. 土豪妻妾, 把王姑搗住, 舉手亂打. 王姑叫苦連天. 誰敢答應. 土豪醒來, 大歎一聲: “天之有日月, 即人之兩目. 今日被爾賊人, 壞我左目, 獻羞於人, 有何面目見人乎? 眾位娘子, 將他囚入房中, 不可難爲. 待我全愈之日, 與他理論.” 眾妻妾帶他入房, 輪易看守. 又表鄺鳳命人請醫調治不表. 제23회)

이처럼 馬鸞英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난봉꾼 鄺鳳의 회롱에서 일단은 벗어난다. 한편 마준은 여동생의 소식을 알게 되어 광봉의 집으로 쳐들어온다. 그러자 광봉은 몰래 마난영을 飛鵝嶺 萬壽寺의 九龍真人¹⁴⁾에게 빼돌려 자신의 음심을 채우고자 한다.

마난영이 크게 노하여 요사스런 도사에게 계속해서 욕을 퍼부었다. 도사가 화를 냈다. “예뻐서 아껴주는 줄 모르고 여전히 저항하는구나.” 사제에게 명하여 손을 쓰라고 했다. “그녀를 석대 위에 묶어라. 그녀가 어떠한지 보거라. 혹시 바꿀 의향이 있는지 알 수 없구나.” 광봉은 출정 기계를 준비했다. 요사스런 도사는 석대로 바로 들어가서 마난영을 막 회롱하고자 했다. 마난영은 크게 놀라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크게 탄식하더니 혀를 내밀고 이로 꼭 깨물었다. 계속 죽는 소리를 하더니 온몸에 선혈이 낭자하게 되어 숨이 끊어져 저승으로 갔다.(小姐大怒, 連罵妖道不絕, 道人一怒: “不識美愛, 尚然抗拒.” 命徒弟動手: “將他縛在石台之上. 看他如何, 或有轉意未

14) 九龍真人도 도교적인 인물로 악인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馬鸞英을 괴롭히는 장면에 등장하면서 그다지 독특한 면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 환상인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다.

可料得。” 鄺鳳五備出征器械。妖道直入石台，耍弄王姑。小姐大驚，料難得脫，大歎一聲，用舌頭伸出，銀牙一咬。連聲喊苦，滿身鮮血，氣絕歸陰。(제24회)

妖道까지 합세하자 그녀는 절개를 지키기 어렵다는 생각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즉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혀를 깨물고 자살해버린 것이다. 그러자 악인 鄺鳳과 九龍真人은 마난영을 산기슭에 아무렇게나 버리고 만다. 그렇지만 다행히 그녀는 사냥꾼 馬雄이 발견하여 되살아나게 된다. 아울러 그녀는 관음보살의 도움을 받아 무예와 도술을 배워 출중한 혐의인물로 거듭난다.

馬俊은 진두에서 지휘하고 馬鸞英이 요사스런 도사와 겨루는데 요사스런 도사 무리들이 제각기 대적했다. 요사스런 도사는 그녀의 적수가 되지 못해 이길 수 없음을 알았다. 그래서 조롱박을 제로 올리니 저승의 병사가 수천 명이 되었다. 마난영은 그가 요술을 부리는 것을 보고 빨리 조롱박을 들어 올리니 그 안에서 불 기린 한 마리가 걸어 나왔다. 불 기린이 주위를 돌아다니다니 화염이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저승의 신병을 불태웠다. 요사스런 도사가 또 금합을 들어 올리니 철 부리의 까마귀 수백 마리가 나타나 사람의 눈을 쬐아댔다. 병사들이 놀라 갈팡질팡 했지만 마난영은 八卦仙衣乾坤網을 펼쳐 까마귀를 모두 잡았다. 그리고 黃巾力士에게 분부하여 普陀山으로 돌려보내게 했다. 요사스런 도사가 크게 탄식하고 부끄러워하며 원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큰 거북이가 독기를 내뿜으니 천지가 캄캄해졌다. 마난영은 당황하지 않고 정수를 한 번 뿌리더니 손에 千年桃木劍을 들고서 거북이 요괴를 단숨에 베었다. 달아나려고 해도 달아날 수 없었고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 없었다.(悅心王押住陣腳，王姑與妖道對陣，奸黨分頭對敵。妖道見不是他的對手，難以取勝。祭起葫蘆，陰兵數千。王姑見他妖術弄起，快將葫蘆一揭，走出一只火麒麟，周圍透繞，火焰騰騰，把陰兵燒成灰燼。妖道又將金盒一揭，鐵嘴烏鴉數百，搶人眼睛。眾兵被嚇，王姑用八卦仙衣乾坤網拋起，盡把烏鴉網盡。吩咐黃巾力士，帶回普陀山發落。妖道大歎一聲，難顯羞顏，現出原形，大龜毒氣一噴，烏天暗地。王姑不慌不忙，用淨水一灑，手拿千年桃木劍一口，將靈龜斬落。要逃逃不得，要遁遁不能。(제34회)

馬鸞英은 연약한 여인에서 용감무쌍한 女俠으로 변화하여 요괴를 단숨에 무찌르고 있다. 다른 여협들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마란영도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은 공통적이라 볼 수 있다.¹⁵⁾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녀는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이처럼 늠름하게 요사스런 무리들을 대적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女俠 馬鸞英과 男俠 馬俊 등은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俠行을 실천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충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들은 遊俠과 忠俠의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¹⁶⁾

2) 不正人物

부정인물은 조정의 간신 屈忠成이 대표적이고 다른 인물들은 주변에서 작은 역할을 하다 없어지고 만다. ‘萬人之上, 一人之下’의 재상 굴충성은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황제를 기만하고 황제의 자리를 넘보는 인물이다.¹⁷⁾

간신 屈忠成과 반대로 司馬相如是 孝廉 출신으로 강직하고 부지런한 인물이다.

또 司馬相如是 山西 사람으로 孝廉 출신이었으며 右丞相에 임명되었는데, 위인이 강직하고 국정에 근면했다.(而又有一位姓司馬名相如, 乃山西人氏, 由舉孝廉出身, 官拜右班丞相之職, 爲人剛直, 勤勞國政. 제1회)

15) 이러한 고난의 길은 천명의 길이라 할 수 있으며 가야할 길이지 가고자 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혐의인물들은 영웅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므로 고난의 길을 통해 국가와 가정의 평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박일용 등 저,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영웅군담소설의 연구사적 조망』, 보고서, 2011, 73-84쪽 참조.

16) 遊俠과 忠俠에 대한 분류는 金明信,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研究」, 高麗大博士論文, 2000. 6. 99-134쪽 참조.

17) 屈忠成의 이와 같은 야심은 『忠烈俠義傳』의 龐吉과 유사한 상황이다. 방길은 황제의 인척이자 太師로서 황제의 자리를 넘보고 있고 굴충성은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황제를 기만하고 황제가 되고자 한다. 金明信, 「한글 필사본 『忠烈俠義傳』의 惡人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7집, 2008, 3, 237쪽 참조.

이처럼 충신 司馬相如是 출신도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지만 간신 屈忠成은 科擧에 정당하게 급제하지 못했고 행동 패턴을 보면 간신배에 해당한다. 그는 賜進士¹⁸⁾ 출신이었지만 재수 좋게 승상의 지위까지 올랐는데, 아부와 권모술수를 통해 그렇게 되었음이 다음 문장에서 드러난다.

당시 左丞相 屈忠成은 河南省 사람이다. 그는 賜進士 출신으로 의외로 수상의 지위에 올랐는데 올바르지 못한 간악하고 아부에 능한 부류였다.(當時有左班丞相, 姓屈名忠成, 乃系河南省人氏. 由賜進士出身, 居然官居首相之尊, 二坎不端, 乃奸佞之輩. 제1회)

屈忠成이 아부와 술수에 능하여 재상까지 올랐다는 사실은 결국 혼란한 시대임을 의미한다. 혼란한 시대상황은 불쌍한 서민들을 고난에서 구제해 줄 俠義人物과 같은 영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부정인물은 혐의인물이 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이자 배경이 된다.

간신 屈忠成에게 빌붙어서 나쁜 계책을 짜내고 있는 인물인 韓通이다. 한 통은 굴충성에게 공자 屈方을 가짜 부마로 만들 계책을 세우고 나서 柳絮와 柳眉를 없애버리려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생각해낸다.

간신 下大夫 韓通은 柳府의 일을 알고 나서 급히 相府로 가서 太師를 알현했다.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형부가 병이 나서 아들을 부른다고 하는데 마침 오늘 저녁에 실행합니다. 제가 가짜로 성지를 가진 관원으로 분장하고 그에게 입궁에 관한 일을 선포하고 심복 하인 두 명에게 무사로 분장하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짜 성지를 읽고 나서 조정에서 그의 부친 柳眉가 사사로이 산적들과 내통하여 모반할 생각이 있어 벌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성상이 대노하시어 한 사람이 난을 일으키니 그 죄가 처자식에 게 미쳐 그를 죽일 거라고 말입니다. 생각건대 공자 屈方께서는 용모가 유사와 비슷하여 알아볼 사람이 없으니 가짜로 부마 분장을 하면 그 가운데에서 일을 취할 수 있으니 어찌 어렵겠습니까? 다행히 柳絮의 주변은 모두 제 하인들이라 누설되지 않을 것입니다. 태사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요?”

18) 賜進士는 進士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진사에 해당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태사가 말했다. “이 계책은 문제가 있네. 만약 유미가 조정으로 돌아온다면 그가 친아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황제에게 상주하게 되면 황제께서 질책하시고 황제를 기만한 죄가 있게 되는데…” 한통이 말했다. “먼저 그의 아들을 죽이지요. 후에 묘책을 써서 유미를 살해하여 경사로 돌아올 수 없게 하면 후환을 없게 되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간상이 크게 기뻐하며 묘책이라고 거듭 칭찬했다.(奸臣下大夫韓通, 得了柳府之事, 急入相府稟上太師: “好了, 好了, 聽得刑部有病, 喚子回衙, 正好今晚行事. 待本官假扮帶旨官員, 宣他入宮議事, 命兩個心腹假扮宮中武士相隨. 待我讀罷假旨, 朝廷罪他父親柳眉, 私通山賊, 有造反之意. 聖上大怒, 一人作亂, 罪及妻兒, 將他殺了. 思想屈方公子, 面貌相同, 無人認出, 假扮爲駙馬, 於中取事, 有何難哉? 幸得他的左右, 都是我家人物, 不防泄漏. 太師尊意如何?” 太師道: “此計差矣. 倘柳眉回朝, 認他不是親兒子, 奏聞聖上, 天子執責, 有欺君之罪…” 韓通道: “先殺他的兒子. 後用妙計, 害卻柳眉, 使他不能回京, 以絕後患, 豈不美哉!” 奸相大喜, 連稱妙計. 제6회)

이처럼 韓通이 무서운 음모를 꾸며내자 屈忠成은 처음에는 황제에 대해 염려하는 말을 하며 주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통이 더욱 악독한 계교를 생각해내자 금방 찬성하며 칭찬까지 해준다. 그리하여 이들은 즉시 이러한 계략을 밀어붙이게 되고 충신의 아들 柳絮는 끝없는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된다.

요컨대, 不正人物은 자신의 권세와 만족하지 못하고 황제의 지위를 넘보고 황권을 차지하기 위해 반역하는 인물들이다. 屈忠成은 재상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을 가졌고 그에 빌붙은 韓通은 굴충성에게 아부하여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그들은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결국 패배와 죽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3) 愛情人物

애정인물은 혐의인물 郝聯과 의형제를 맺은 柳絮와 富柳英이 두드러진 행태를 보인다. 유서는 비록 의협인물과 의형제이긴 하지만 의외로 무예나 지략에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는 매우 나약하게도 재상 屈忠成에게 쫓기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된다. 게다가 그는 여자처럼 어여쁘게 생겼기

때문에 여장을 강요당하며 하녀로 팔리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호감을 사는 용모와 언변을 가지고 있어 주인 아가씨 富柳英의 눈에 들어 그녀와 인연을 맺는다.

그런데 柳絮는 富柳英과 인연을 맺기 전에 부마로 선발되어 武帝의 딸 獨陽公主¹⁹⁾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다. 유서와 독양공주가 만나게 된 장면을 보기로 하겠다.

공주가 눈을 들어 보니 人山人海여서 도화와 같은 입술을 약간 벌리며 생각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수많은 황친들을 이끌어 사방에서 사그라드는구나. 봐라. 사람들마다 비록 의관을 정제하고 있지만 조정의 동량 같지는 않다.’ 柳絮를 보고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는 의관이 화려하지 않지만 관옥과 같은 얼굴에 눈썹은 맑고 눈이 수려하다. 치아는 하얗고 입술이 붉으니 이후에 반드시 조정의 주춧돌이 될 거다.” 공주가 수놓은 공을 던지니 유서의 손에 떨어졌다. 각각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 잡고자 했지만 郝聯이 어림군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에게 멈추도록 호령했고 마침내 유서와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부친에게 보고하러 갔다.(公主舉眼一觀, 見人山人海, 微展桃唇. 暗道: “爲奴一人, 引得許多皇親國戚, 四方買賣. 你看人人雖系衣冠齊整, 不似朝廷梁棟.” 把眼看見柳絮公子, 心中大喜: “看他衣冠不是華美, 獨系面如冠玉, 眉清目秀, 齒白唇紅, 後必爲朝廷柱石.” 將繡球一丟, 落在柳絮之手. 各人上前欲搶, 郝聯並禦林軍喝散衆人住手, 遂辭別柳絮, 即轉回家中, 報稟父親知悉去了. 제4회)

獨陽公主는 당시 柳絮의 외모만을 보고 평가했지만 그는 이미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그에 대한 평을 보면 다음과 같다.

河南省 洛陽縣에 上大夫 柳眉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부인 賈氏는 아들 柳絮만을 낳았다. 유서는 사람이 총명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여 재능이

19) 獨陽公主는 柳絮의 성명과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되고 있다. 굳건한 陽剛의 의미를 가진 공주는 의외로 여성이나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를 가진 유서는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면은 작자가 등장인물의 작명에 있어서도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비범하고 책을 널리 읽어 학식이 풍부했다.(河南洛陽縣內, 有一姓柳名眉, 官居上大夫之職. 夫人賈氏, 單生一子, 名喚柳絮. 其人聰明好讀詩書, 才高八鬥, 學富伍車. 제1회)

그렇지만 柳絮는 獨陽公主와의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재상 屈忠成의 음모로 고난을 겪게 된다. 그는 천진난만한 白面書生²⁰⁾에 해당했기 때문에 부친 柳眉가 전쟁에 나가게 되고 모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그가 겪었던 고난 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다.

도적이 말했다. “너를 여장시켜서 하녀로 팔려고 한다.” 부마가 놀라 절을 하며 말했다. “대장부로서 어찌 여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문의 체면을 잃게 됩니다.” 도적이 화를 내며 손을 휘둘러 부마를 잡고 그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더니 칼로 목을 치려고 했다. 부마는 손을 뻗어 날카로운 말을 잡으며 크게 외쳤다. “살려주세요. 여장을 하겠습니다.” 도적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로 여장할 수밖에 없다.” 즉시 부마를 놓아주었다. 도적은 옷상자를 열어 여자 옷을 꺼내더니 여인으로 분장시켰다. 柳絮는 치욕을 참으며 여장할 수밖에 없었다. 도적이 그의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정말로 아름다운 미녀 같구나. 나를 너의 외삼촌이라고 해야 하고 이름을 王貴花라고 해야겠다. …내가 돈을 손에 넣고 간 후에 네가 발각되면 도망가 거라.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마는 눈물을 머금고 승낙했다.(賊人道: “欲將你男扮女裝, 賣去人家爲婢.” 駙馬一驚, 下禮道: “大丈夫之志, 豈肯扮作女人. 有失祖宗體統.” 賊子一怒, 將手一抖, 攬住駙馬, 押倒在地, 用刀照頭斬來. 駙馬用手一架, 托住利刀, 大叫: “饒命才好, 願扮了.” 賊笑道: “諒你不得不扮.” 急時放手. 打開衣箱, 取出婦人衣物, 逼扮女人. 柳絮只得忍辱改扮. 賊見大喜: “真真是美貌佳人. 還要認我爲爾母舅, 改汝名喚王貴花. …我得銀到手, 去後任你敗露尋走. 尙未交易, 不許開口. …” 駙馬含淚應允. 제14회)

20) 『兒女英雄傳』의 安驥도 白面書生처럼 보였으나 나중에는 科擧에 급제하고 국정을 담당하는 훌륭한 관리가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柳絮와 닮은 구석이 있다. 다만 안기는 장군으로 활약하지 않고 있지만 유서는 작품의 말미에 간신들을 제거하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金明信, 『『兒女英雄傳』의 구조와 서술형식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論叢』 제36집, 2008. 3. 157-174쪽 참조.

이처럼 유서는 치욕스럽게도 여장을 강요당했고 개명까지 해야 했다. 그는 사내 대장부였지만 간신 재상에게 쫓기는 신세였으므로 도적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게 나약하게 응낙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富柳英은 다정다감하며 인정에 약한 여인이다. 그녀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柳絮의 말을 믿어주고 동정하며 결국 그와 인연을 맺는다. 한편 그녀의 오라비 富大雄은 현실적인 인물로 유서의 말을 전혀 믿지 못하며 유서를 사기꾼으로 몰아 고발하여 사형장에 가게 만든다. 그런데다가 그는 여동생이 사기꾼에게 정절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자신을 강요한다. 부유영은 올케의 도움으로 몰래 도망쳤다가 나중에 사냥꾼에게 구출되고 결국은 유서의 제2부인이 된다. 부유영은 유서와의 애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점에서 대표적 애정인물이라 할 수 있다.

富柳英은 유서를 처음 보자마자 예쁜 용모에 흠족해한다. 그녀는 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와 외모에 반했던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富柳英은 미소를 지으며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오빠에게 절을 했다. 富大雄이 말했다. “야야, 이 하녀를 보거라. 마음에 들면 위층으로 데리고 가거라. 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마라.” 부유영이 앞으로 나아가 보니 그가 예쁜 용모라서 매우 흠족했다. 그래서 손을 잡고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다.(富柳英微笑下樓. 一見哥哥下禮. 公子叫聲: “賢妹, 爾看此婢, 但悅意帶上樓去. 倘不如意, 不可多事.” 小姐近前一觀, 見他美貌, 十分合式. 攜手同登繡樓. 제16회)

유서가 마음에 들었던 富柳英은 함께 술을 마셨다가 그가 남자임을 간파하고 깜짝 놀란다. 그녀는 유서에게 화를 냈다가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對聯을 지어보라고 하면서 그의 재능을 시험해본다.²¹⁾ 아울러 유서의 말을 믿어야

21) 富柳英이 柳絮에게 對聯을 지어내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녀가 詩에 대한 소양을 갖추었고 재주가 있는 여성임을 나타낸다. 또한 부유영의 확신은 유서와 잘 어울리는 배필임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남녀의 혼인을 정할 때 ‘門當戶對’라는 원칙을 고수하고자 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우연히 만났으므로 ‘門當戶對’라는 원칙이 적용될 수 없었지만 공주와 유서의 결합은

할지에 대해 그녀는 갈팡질팡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富小姐가 몇 걸음 놀라서 몇 걸음 물러나더니 크게 화를 냈다. “너는 어떤 사람인데 여장을 하고 우리 오빠를 속였느냐.” 부마가 놀라 깨어 침대에서 물러나 절을 했다. “바라옵건대 아가씨께서는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저가 그를 찬찬히 쳐다봤다. “너의 모습을 보아하니 비천한 사람은 아닌 것 같구나. 반드시 연고가 있을 것이니 진실을 말하면 올케에게 놀라지 않게 할 수 있겠다.” 柳絮가 말했다. “저는 駙馬이자 東平侯이며 上大夫 柳眉의 아들인 柳絮라고 합니다. 간신에게 살해당할 뻔하여 경사 밖으로 도망쳤 습니다. 또 강도 葉世雄을 만나 괴롭게도 여장하도록 강요당하고 기루에 팔렸다가 재물을 사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뜻밖에 강도들과 싸우기 힘들어서 치욕스러움을 참고 여장했다가 기생들의 배에 팔렸습시다. 그대의 오라비가 여기까지 즐겁게 데리고 왔는데 눈 뜬 장님이라 내가 여장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은전을 내 몸값으로 지불하고 사실은 첩실로 삼고자 했지요. 다행히 부인이 따르지 않아 소저를 만난 겁니다. 술에 취하여 본색이 드러난 것이니 제발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저가 미소를 지었다. “네가 부마를 자칭하고 도중에 난을 만났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구나. 당신이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대련을 지을 테니 그대가 대답해 보세요.”²²⁾(小姐驚退幾步，大怒：“你是何等樣人，男扮女裝，欺騙家兄財物。”駙馬驚醒，將身離牀，亂行施禮：“望小姐饒命。”小姐細觀：“奴看你相貌，不是下賤之人。其中必有緣故，好把真情實說，免驚動哥嫂不便。”柳絮說道：“小生系當今東牀駙馬·東平侯之職，上大夫柳眉之子，柳絮是也。被奸臣所害，逃出京外。又遇強人葉世雄，苦迫男扮女裝，賣落煙花之地，圖騙財物是真。自料難與強徒爭力，只得忍辱改裝，賣落婊子船中。爾令兄到此快樂，有眼無珠，不識我男扮女裝。將銀贖我身價，實欲爲偏。幸得令嫂不依，得遇千金。酒醉敗露，望乞包涵。”小姐微笑：“你自稱駙馬，中途遇難，亦不可不信。爾既是有才的人，妾有對聯，請

전통적인 원칙을 적용한 예라고 하겠다.

- 22) 富柳英의 혼란한 심리는 柳絮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에서도 드러난다. 처음에는 ‘你’를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는 ‘爾’를 사용했으며 마지막에는 ‘君’을 사용하고 있다. 부유영이 그를 무작정 믿기에는 석연치 않았지만 믿고자 하는 심리가 강했기에 이렇게 호칭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君對來.” 제16회)

이처럼 富柳英은 柳絮의 글짓기 재주를 시험하여 그가 단순히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인물임을 알아내게 된다. 유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판단한 부유영은 그를 숨겨주다가 사랑을 느껴 결국 그와 인연을 맺기로 한다. 그래서 그녀는 대담하게 자신의 애정을 고백한다.

富柳英은 부끄러운 듯이 입을 열었다. “불행하게도 조실부모하고 오빠가 방탕하여 나중에 시비를 일으킬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평생을 의탁하고자 합니다. 그대가 버리지 않다면요.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부마가 크게 기뻐했다. “일찍이 그대를 보니 재주와 미모가 모두 갖추고 있어 여자 중에 드문 경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감히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당신의 승낙을 받았으니 평생의 희망을 충족한 것이지요. 오직 중매인을 선택하지 못해 사통했다는 조롱을 받게 두렵습니다. 마침 청명한 날이니 두 사람이 하늘에 대해 맹세하는 게 어떨까요?” 향을 사르고 무릎 꿇고 앉아 축원했다. “남자가 여자를 배신하면 칼 맞아 죽으리라. 여자는 남자를 배신하면 해산하다 죽으리라.”(柳英含羞啓齒道: “不幸父母早亡, 家兄浪蕩, 恐後生非. 故把終身相托. 恐君見棄, 未知允否?” 駙馬大喜: “早見妝臺, 才貌雙全, 女中少有. 本公久存此心, 但不敢亂語胡言. 既蒙相許, 足慰平生之願. 惟未擇得冰人, 恐惹苟合之諷. 趁此風清月明, 二家對天盟誓何如?” 焚香跪下, 祝曰: “男若負女, 刀下死. 女若負男, 產中亡.” 제17회)

이처럼 富柳英은 柳絮가 獨陽公主와 혼인해야 하고 자신이 제2부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애정을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중에 富大雄이 사실을 알게 되어 그녀에게 자살을 강요하지만 부유영은 몰래 도망쳐서 결국 유서와 재회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

이상과 같이 애정인물의 행태를 살펴보면, 柳絮와 富柳英은 전형적인 愛情小說의 등장인물과 다르었다. 이들은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겪으며 결국에는 자신들의 애정을 완성하여 혼인이라는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다.

4) 幻想人物

幻想人物은 작품의 내용을 현실에서 벗어난 환상 세계와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다.²³⁾ 이 유형은 긍정인물과 부정인물이 모두 포함되는데, 觀音菩薩, 善才童子, 王禪老祖, 蕭古達은 긍정인물에 속하고 妖怪²⁴⁾ 卜道安과 聶法成은 부정인물에 속한다.

觀音菩薩은 자비로움을 상징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혐의인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관음보살이 여도사로 나타나서 馬鸞英을 소생시키는 장면이다.

馬雄이 자기 집에 막 도착했는데 갑자기 여도사가 나타나서 아미타불을 의우며 소리쳤다. “거사, 이 분은 누군가요?”…여도사가 자비롭게도 앞으로 나아가 살펴보았다. “당신은 영웅 열사신데 살릴 묘약이 있으신지요?”…묘약을 꺼내어 앞으로 나아가 입 안에 넣어 주었다. 선단을 복용하니 아가씨(馬鸞英)가 천천히 깨어났다.(將到自己莊門, 忽有道姑, 口念阿彌陀, 叫聲: “居士, 此位是誰?”…道姑慈悲, 向前一觀: “爾是英雄烈士, 可有妙藥搭救否?”…取藥近前, 放在牙關之內. 仙丹進腹, 小姐慢慢復蘇. 제 24회)

이처럼 觀音菩薩은 죽어가는 사람을 되살리는 자비로움을 드러낸다. 또한 이러한 자비는 정의로운 혐의인물을 위해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관음보살은 善才童子를 보내서 혐의인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法寶 등을 하사하기도 하고(제39회) 王禪老祖와 蕭古達도 혐의인물들을 위해 온갖 술 법과 무예 등을 수련하여 屈忠成을 비롯한 逆徒에게 대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부정인물에 속하는 卜道安의 모습과 행적에 관한 문장이다.

23) 대개 고전소설에서 환상인물은 종교적인 인물들로 佛教와 道教의 인물이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작품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4) 요사스러운 정기로 이루어진 사물로는 ‘妖精’이라는 용어도 있으나 좀 더 부정적인 어감을 강화하기 위해 ‘妖怪’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衛靑 장군이 道人 한 명을 보았는데 머리에 작은 모자를 썼고 두 개의 뿔이 나 있었다. 얼굴은 칠혹과 같이 검고 몸에는 검은 도포를 입었으며 손에는 塵拂短劍을 들고 있었다. 말을 재촉해서 앞으로 나아가 칼을 들고 베었다니 도인이 막아내고 통성명도 하지 않았다. 양쪽 군대가 서로 대치하다가 반란군이 참패했다. 郝聯이 銅錘로 공격하여 屈忠立을 때려 죽이니 말에서 떨어졌다. 도인이 깜짝 놀라며 대적할 수 없고 승리하기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본색을 드러냈다. 거북이가 땅바닥에서 이리저리 도망치다가 독 기운을 뿜어내니 구름과 안개로 뒤덮여 서로 분간할 수 없었다.(衛將軍見有一位道人, 頭帶小帽, 頭生二角. 面如黑漆, 身穿烏甲道袍, 手持塵拂短劍. 催馬上前舉刀砍落, 道人招架, 未通姓名. 兩軍對壘, 反兵大敗. 被郝聯一銅錘打去, 將屈忠立打死, 墜落馬下. 道人一驚, 不能抵敵, 難以取勝, 自思無奈, 現出原形. 烏龜在地下亂竄, 噴出毒氣, 遮掩雲霞, 爾我不能相見. 제32회)

道인의 모습을 가장한 거북이 요괴는 결국 혐의인물에게 대적하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만다. 간악한 屈忠成을 위해 재주를 선보였던 卜道安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자 마지막까지 최후의 발악을 하며 독 기운을 뿜어대며 사람들을 해치고자 했다. 그는 사악한 무리를 돕는 데 자신이 수련했던 기술을 아무렇게나 이용해서 결국 자신까지도 패망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와 비슷한 유형으로 聶法成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終南山에 雲涯老祖의 무리가 있었는데, 聶法成이라 했다. 그의 스승은 鵠鷗山 雲峰老祖와 동문이다. 그 사람은 원래 원승이 神仙²⁵⁾의 화신인데, 무궁무진하게 수련하여 구름과 안개를 탈 수 있고 비바람을 부릴 수 있으며 무쇠를 금으로 만들 수 있다. 18만 무예를 완벽하게 알고 갖가지 보물을 사용하며 술법이 뛰어났다. 스승의 명을 자주 받들어 운봉도인과 왕래하며 교류를 했었다.(又說終南山, 有一雲涯老祖之徒, 姓聶名法成, 其師與鵠鷗山雲峰老祖系同師學道. 其人原是猿仙化身, 練得變化無窮, 能騰雲駕霧, 呼風喚雨, 點鐵爲金. 十八般武藝, 無有不諳, 多般寶物, 法術

25) 神仙은 본래 중국 道教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인데, 이 작품에서는 사악한 요괴나 정의로운 도사 모두에게 사용되고 있다.

高強. 常奉師命, 與雲峰道人來往至交. 제35회)

聶法成은 사형 卜道安의 죽음을 알고 복수하기 위해 屈忠成 무리에 가담하여 술법을 사용하게 된다.

聶法成이 재빨리 말을 타고 나아가 접전했고 마준은 그의 후발대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역시 군대를 재촉하여 돕도록 했다. 여러 차례 싸웠지만 사악한 도인이 打將砂를 꺼내 주문을 외우고 허공으로 던졌다. 打將砂가 곡식 한 말 크기처럼 커져서 셀 수 없이 떨어지니 병사들이 저항할 수 없어 머리가 깨지고 뇌가 튀어나왔다. …漢軍이 대패했고 사망자가 셀 수 없이 많았다.(法成催騎上前接戰, 馬俊見他後隊擁上, 亦催動人馬助陣. 戰有多合, 妖道取出打將砂, 念起咒詞, 望空一拋. 砂如斗大, 落不計數, 兵將難以抵擋, 頭破腦出. …漢軍大敗, 死者不計其數. 제38회)

이처럼 聶法成은 강력한 도술을 사용하여 漢軍과 협의인물을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그렇지만 觀音菩薩, 王禪老祖와 蕭古達 등이 협력하자 그의 도술은 깨지고 만다.

이 작품의 환상인물은 긍정인물이든 부정인물이든 모두 도술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觀音菩薩 등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 도술을 사용하고 卜道安 등은 사람을 죽이는 데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5. 나오는 말

朝鮮은 중국과 줄곧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중국의 서적과 문물을 대량으로 수입했다. 중국의 수입 서적에서 古典小說은 士大夫, 譯官과 婦女들에게 사랑받는 물품이었다. 중국의 고전소설은 조선에서 轉寫되거나 出版되고 翻譯되는 경우도 많았다. 『三合明珠寶劍全傳』은 조선에 전래되어 현재 成均館大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중국 내에서도 원본이 훼손되어

脫字 등이 많고 나중에 재출판되었지만 그리 많이 유통되지 않은 편이다. 현재 한국에 소장된 판본도 비교적 희귀한 판본에 속한다고 하겠다.

『三合明珠寶劍全傳』은 俠義愛情小說에 속하는 작품인데, 등장인물도 고전소설의 형식과 비슷하게 俠義人物, 不正人物, 愛情人物, 幻想人物 등 善惡의 대립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작품의 서사는 협의인물 馬俊의 활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의인물 중에서 돋보이는 馬鸞英은 온갖 고난 가운데 우뚝 일어난 立志傳의인 女俠이다. 재상 屈忠成을 포함하는 부정인물은 협의인물과 대결 구도를 이루며 마지막에는 처참하게 패배한다. 柳絮는 애정인물이지만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立身揚名을 이루며 두 명의 여인과 결혼한다는 면에서 나름대로 영웅성을 지닌다. 이 작품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환상인물은 불교와 도교적 인물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三合明珠寶劍全傳』은 『爭春園』의 인물과 서사에 있어서 매우 비슷하다고 평가되지만 애정인물 柳絮의 고난과 애정 고사가 강화되어 있으며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三合明珠寶劍全傳』은 앞으로 좀 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작품이라 하겠다.

❖ 참고 문헌

- 이중연, 『고서점의 문화사』, 해안, 2007.
- 이민희, 『16~19세기 서적중개상과 소설·서적 유통관계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9.
- 박일용 등 저, 『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점과 전망』, 보고사, 2011.
- 김정녀·박재연, 『忠烈小五義』, 이회문화사, 2005.
- 閔寬東·張守連·金明信 共著, 『韓國 所藏 中國通俗小說의 版本目錄과 解題』, 학고방, 2013.
- 金明信, 「清代 俠義愛情小說의 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2000. 6.
- _____, 「俠義의 概念과 『兒女英雄傳』의 特徵」, 『中國小說論叢』 제5집, 1996. 3.
- _____, 「낙선재본 『충렬첩의전』의 人物群像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2집, 2005. 9.
- _____, 「한글 필사본 『忠烈俠義傳』의 惡人 연구」, 『中國小說論叢』 제27집, 2008. 3.
- _____, 「『兒女英雄傳』의 구조와 서술형식에 대한 연구」, 『中國語文論叢』 제36집, 2008. 3.
- _____, 「『爭春園』의 構造와 主題 研究」, 『中國小說論叢』 제36집, 2012. 4.
- 佚名, 『三合明珠寶劍全傳』, 春風文藝出版社, 1993.
- 白維國·朱世滋 主編, 『古代小說百科大辭典』, 學苑出版社, 1991.
- 黃軼球, 「越南古典文學名著成書溯源」, 『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 第1期, 1982. 4.

❖ ABSTRACT

The Study on San-he-ming-zhu-bao-jian-quan-zhuan
(三合明珠寶劍全傳)'s Xylographic Book and Narration

Kim, Myung-sin / Min, Kwan-dong

San-he-ming-zhu-bao-jian-quan-zhuan(三合明珠寶劍全傳), this work is characte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San-he-ming-zhu-bao-jian-quan-zhuan*'s characters appear equally, the readers feel familiar. This work is formed a universal consensus. Ordinary people must empathize about xia-yi(俠義) and retribution, this work was well represented. Because the readers would have liked to this story.

It was an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Joseon Dynasty(朝鮮) all the way, The Joseon Dynasty imported books and the products of civilization. High official, official interpreter, woman loves the classic Chinese novel. The classic Chinese novel was transcribed, published, translated into a book. *San-he-ming-zhu-bao-jian-quan-zhuan* were introduced in the Joseon Dynasty, Sungkyunkwan(成均館) University holds one version. This work is being compromised, many missing words. Domestic holdings are rare.

San-he-ming-zhu-bao-jian-quan-zhuan is a novel of chivalry, the characters are classified into the chivalry, negative hero, person of affection, fantastic figure. This work is centered around Majun(馬俊). Maluanying(馬鸞英) is the heroine, seen as the classic case of overcoming adversity. Quzhongcheng(屈忠成) is the prime minister, negative figure, he fights with the chivalry, was defeated at the end. Liuxu(柳絮) is person of affection, overcoming adversity, marries the two ladies, has a heroic side. Fantastic figure is more enriching the contents of the work, is Buddhist and Taoist figure, serves as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role.

San-he-ming-zhu-bao-jian-quan-zhuan is a similar assessment on Zheng-chun-yuan(爭春園)'s character and plot, But Liuxu's love story is strengthened. Therefore, continued research is needed for this work.

Key Words

삼합명주보검전전, 판본, 서사, 협의인물, 부정인물

San-he-ming-zhu-bao-jian-quan-zhuan, xylographic book, narration, chivalrous fighter, negative hero

논문접수일: 2013. 05. 10.

심사완료일: 2013. 06. 02.

게재확정일: 2013. 06. 07.